



여성 원자력 전문인의 위상 드높여

-제9차 세계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연차대회를 마치고-

홍성운

WIN-Korea 회장

세 계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Woman In Nuclear : WIN-Global, 세계 WIN) 제9차 연차대회가 지난 5월 14~15일 서울 반포 소재 팔레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는 스웨덴 Uranium Institute 회장인 Agneta Rising 여사를 위시하여 외국에서 42명, 국내 약 80여명 등 여성 원자력 전문인 120여명이 참석하여 일반 대중, 특히 여성과 차세대에 대한 원자력의 이해 증진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여성 원자력 전문인의 역할을 다짐하였다.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 WIN은 1993년 창설한 단체로 2000년 현재 51개국의 원자력 에너지, 방사선 이용, 원자력 홍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전문인 약 2천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해마다 동양과 서양에서 반길 아 각국을 돌아가며 연차대회를 열

어 여성 원자력 전문인간의 상호 협동과 전문 경험 교류를 증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여성 원자력 전문인으로서 일반 대중, 특히 여성과 차세대에 대한 원자력 이해 증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그 외 원자력과 같은 첨단 과학 기술 분야와 IAEA 같은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도 여성 전문인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여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WIN의 현회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시설 안전 국장인 아니크 카르니노(Annick Carnino) 여사이며 현재 IAEA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 전문직 중 가장 고위직에 있는 인물이다.

이번 대회는 세계 WIN과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모임(WIN-Korea)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WIN-Korea는 세계 WIN의 취지에 찬동

하여 세계 WIN의 국내 조직으로 지난해 11월 7일 큐리부인 탄생 기념일에 창립되어 현재 국내 원자력 기관에서 직접 원자력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전문인 7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있고 WIN-Korea 취지에 찬동하는 남성들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초대 회장은 현재 원자력병원 핵의학과 과장으로 IAEA 의학 부분의 National Coordinator이고 Medical Cyclotron 과제 책임자인 필자이다.

이번 제9차 대회에서는 세계 WIN 이사회와 정기 총회, 4편의 특별 강연, 7편의 초청 강연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영식 및 소개

제9차 세계 WIN(WIN-Global) 대회에서는 현회회장인 Annick Carnino 여사가 갑작스런 개인 사

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세계 WIN의 초대 회장을 지낸 Irene Aegerter 여사가 주관, 대회의 시작을 알렸으며 모든 참석 회원과 WIN-Korea의 회장인 필자, 신영순 명예회장, 민병주 부회장 등 제9차 WIN 대회 준비위원의 소개가 있었다.

또한 현황 보고에서 세계 WIN 가입국은 2001년 5월 14일 현재 총 56개국으로 증가되어 약 2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을 알렸으며, 세계WIN의 로고인 'smiling atom'의 의견을 제창하고, WIN은 깨끗한 원자력 에너지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사회

WIN-Korea 회원 중 지난해 12월 이미 가입된 20명과 함께 이번 에 새로 등록된 50명을 합하여 총 70명이 세계 WIN-Global 회원으로 승인되었으며 처음 참가한 중국 2명, 스위스 2명도 가입하여 회원으로 승인되었으며 개인적으로 참가한 베트남 회원 1명도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희망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필자가 새로운 집행이사로 선출되어 집행이사는 총9명이 되었으며 집행 이사들이 세계 WIN의 운영을 책임지게 되었다. 이들 집행이사국과 집행이사들



연차대회 참석자들. 이번 연차대회에서는 외국에서 42명, 국내 약 80여명 등 여성 원자력 전문인 120여명이 참석하여 일반 대중, 특히 여성과 차세대에 대한 원자력의 이해 증진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여성 원자력 전문인의 역할을 다짐하였다.

은 핀란드(Annele Ninuka) · 스웨덴(Agneta Rising) · 일본(Junko Ogawa) · 프랑스(FranceBres-Tutino) · 미국(Patricia Bryant) · 헝가리(Ludmilla Kiss Zoltanne) · 타이완(Jessie Chiu), 스페인(Maria Teresa Lopez Carbonell), 한국(홍성운) 등이다.

세계 WIN의 이사국 중 이번 대회에 참석한 나라는 베라루스 · 체코공화국 · 핀란드 · 프랑스 · 헝가리 · 일본 · 한국 · 리투아니아 · 슬로바키아공화국 · 스웨덴/노르딕 WIN · 스위스 · 타이완 · 미국이며, 비참석 이사국은 오스트리아 · 아르헨티나 · 브라질 · 불가리아 · 크로아티아 · 인도네시아 · 멕시코 · 루마니아 · 러시아 · 스페인 · 우크라

이나이다. 그의 이사국 대표 중 슬로바키아 공화국과 헝가리는 회장의 교체로 대표가 바뀌었고, WIN-타이페이도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었음을 알렸다.

총회

과거의 총회와 달리 제9차 대회부터는 각국의 현황 보고는 참석국이 너무 많아 모두 보고하는 대신 포스터로 대체하고 현재의 핵에 대한 논쟁의 핵심만을 발표하기로 하였으며 그 내용과 발표국은 다음과 같다.

1) WIN Internet 현황 : 미국 · 한국 · 일본 · 슬로바키아



2) 원자로의 수명 연장 : 미국 · 헝가리 · 체코

3) 방사선 프로그램 : 미국 · 한국 · 핀란드 · 스위스 · 슬로바키아 · 체코

4) 핵관련 특별 사안 : 중국 · 핀란드 · 체코 · 슬로바키아

5) 기타 : 중국은 자국의 원자력 프로그램과 각종 핵관련 분야에서 여성 원자력 전문인의 참여에 대해 설명하였고, 핀란드는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에 대한 핀란드에 의해 새로운 도전에 대해, 체코공화국은 자국의 원자력 프로그램, 특히 원자로 해체 계획에 대하여, 슬로바키아 대표는 자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의 새로운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프랑스는 2002년 5월 말 제10차 세계 WIN 대회를 파리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여 만장 일치로 승인되었으며, 일본은 2004년 제12차 대회를 유치할 것을 희망하였으나 2003년 연차대회가 미주대륙(멕시코 예정) 개최가 어려울 경우 일본에서 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한편, 해마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에 기여가 큰 여성에게 주는 세계 WIN상은 일본「여성 에너지 네트워크(WEN)」 창설자이며 에너지 및 환경 문제 평론가인 '유키 아오미' 여사가 받게 되었으나 개인 사정상 불참한 아오미 여사가 비디오를 통해 수상 소감을 전달하

고 대신 일본 대표인 준코 오가와씨가 받았다. 또한 2000년 헬싱키 대회에 수상하지 못했던 제5회 세계 WIN상 수상자인 Svetlana Vastchenko 여사가 이번 주최측의 초청으로 참석하여 수상을 하게 되는 기쁨을 누렸다.

우리 나라는 1998년 제3회 세계 WIN상으로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WIIN ; Women Interested In Nuclear)의 신영순 총재가 받은 바 있다.

총회가 끝난 후 지역 구조상으로 가까운 나라끼리 긴밀한 정보 교환과 협조를 갖기 위하여 한국 · 중국 · 일본 · 대만 · 몽골 · 베트남 등 6개국이 적극 참여하여 세계 WIN의 지역 기구로서 WIN-Asia 설립을 위한 예비 모임을 가졌다.

세계 WIN의 최근 전회장인 Agneta Rising이 참석하여 설립을 격려했으며 각 참여국들은 계속적인 진척을 위해 각국의 접촉인을 정하도록 하고 WIN-Asia 설립을 위한 상세한 계획을 위해 WIN-Korea의 민병주씨를 focal point로 결정하였다.

강 연

이번 제9차 대회에서는 4편의 특별 강연과 7편의 초청 강연이 있었으며 그외 방사선 조사 식품 등의 시음 등이 제공되는 등 각종 행사가

진행되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특별 강연

- ① 남녀 문제와 여성 과학자의 역할 : 한국과학기술원 윤정로 교수
- ② 세계 에너지 현황과 환경 문제 : 세계우라늄연구소 A.Rising 회장
- ③ 한국의 원자력산업 현황과 전망 : 한국수력원자력발전(주) 최양우 사장
- ④ 새로운 원자로에 대한 대중의 이해 : 미국원자력에너지연구소 P.Bryant 국장(미국 WIN 회장)

2. 초청 강연

- ① 방사성 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과 전망 : 원자력병원 핵의학과의 홍성운 과장(한국 WIN 회장)
- ② 방사선과 여성 건강 : 중문의대 안명옥 교수
- ③ JCO 사고의 교훈 : 일본전력 중앙연구소 사회경제연구센터 T.Tsuchiya 선임 연구원
- ④ 원자력 안전 문화 증진 방안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은영수 전문위원
- ⑤ 인삼의 방사 예방 및 면역 촉진 효과 : 원자력병원 면역학연구실 윤연숙 박사
- 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위원소 이용 : 한국원자력연구소 박경배 동위원소 · 방사선 응용팀장

기타 행사

이번 대회의 특기 사항으로는 WIN 대회 사상 처음으로 중국·몽골과 베트남이 참가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참여 확대와 함께 사회주의 국가로의 참가가 확대된 점이다.

그 외 세계 WIN 회장인 Annik Carnino가 갑작스런 개인 사정이 발생되어 불참하였으나 전 회장들의 도움으로 대회를 무난히 치를 수 있었다.

또한 회의장에는 각국의 원자력 사업에 대한 소개와 홍보물을 포스터로 전시하였고 막간을 이용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방사선 조사 식품과 식이 섬유로 만든 빵·잼 등의 소개 및 시식, 인삼공사에서 인삼 제품 소개 및 시식을 하도록 제공하여 주었고, 전통 한복쇼 및 고전 무용, 김치 시연회, 전통 한과 및 떡 소개 및 시식과 한국 전통 무용 공연 등 많은 행사를 원자력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셨다.

회의가 끝난 후 외국에서 참여한 회원들은 이틀 동안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 환경기술원(KHNP-NETEC)에 들러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전시장 등을 방문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하나로」연구용 원자로를 관



연차대회 참석 국내 귀빈들.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 원자력 사업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였으며 우리 나라 여성 원자력 전문인의 위상을 높이는 귀중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세계 WIN과의 Inter정보 교류에 중점을 두고 또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의 여성 원자력 전문인간의 정보, 경험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도 수립하여 다른 나라 WIN 회원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높여 공동 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람하여 우리 나라 원자력 산업 기술의 수준을 가늠하였으며, 돌아오는 길에 수원의 민속촌을 관람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결 어

이번 대회는 우리 나라 원자력 사업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였으며 우리 나라 여성 원자력 전문인의 위상을 높이는 귀중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세계 WIN과의 Inter정보 교류에 중점을 두고 또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의 여성 원자력 전문인간의 정보, 경험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도 수립하여 다른 나

라 WIN 회원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높여 공동 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번 대회를 성공리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최양우 사장님, 한국원자력연구소 장인순 소장님,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김장곤 이사장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세종 원장님, 한국여자의사회 등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졌음에 이 기회를 빌어 감사드리며, 이번 대회를 핵심적으로 도와주신 원자력연구소의 정준극씨와 회원, 기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